



6월 8일 준공법회를 통해 위용을 드러낸 충북 음성 광명선원 대웅전 전경.

충북 음성 광명선원 대웅전  
6월 8일 준공법회 봉행  
4천여 대중 참석



탄허 불교문화재단 이사장 혜거 스님을 비롯해 한마음선원 안양 본원 주지 혜원 스님, 한마음선원 재단이사장 혜수 스님, 대구지원장 혜술 스님, 광명선원 주지 청백 스님, 한마음선원 박종수 신도회장 및 최기영 대목장 등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 7년 중창불사... 자연미 넘치는 새 도량 탄생

충북 음성 광명선원이 7년여의 대웅전 중창불사를 마치고 전통의 향기를 지닌 새도량으로 재탄생했다. 광명선원(주지 청백)은 6월 8일 대웅전 중창 준공법회를 열고 생활참선수행도량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이날 법회는 탄허 불교문화재단 이사장 혜거 스님을 비롯해 한마음선원 안양 본원 주지 혜원 스님, 한마음선원 재단 이사장 혜수 스님, 광명선원 주지 청백 스님 등 사부대중 4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행사는 점안식과 사시예불, 헌판식과 테이프 커팅식, 준공법회 순으로 진행됐다.

혜거 스님은 이날 격려사에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 조성된 광명선원 영탑공원은 전국 어느불교사찰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영지(靈地)다. 이런 영지에 있는 대웅전 회향불사에 함께 참석해 반갑다"며 "광명선원이 돌아가신 부모 자손과의 관계만 아니라 살아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해탈할 수 있는 도량으로 거듭나길 발원한다"고 말했다.

증명법사로 나선 한마음선원 주지 혜원 스님은 "많은 분들의 노고가 컸다. 모든 인연에 감사드린다"며 대웅전 불사에 참여한 장인들과 사부대중에 감사인사를 전했다.

주지 청백 스님은 발원문을 통해 일체 제불전에 "크나큰 법의 스승이신 대행선사 한마음의 가르침이 법비가 되어 천지를 적심에 못 생명들은 그 뿌리를 깊이 내리고 불법승 푸른 물줄기는 끊어짐이 없이 흘러 큰 바다 깊은 물 속 용이 되어 자재로이 들고 나게 하소서"라고 발원했다.

법회에서는 대웅전 불사에 참여한 대목장 최기영, 단청과 탱화채색을 맡은 화백 전장일, 옷칠을 맡은

찰장 정수화 등 장인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어서 대행 선사가 1999년 11월 7일 안양 한마음선원 새법당 준공기념 법회에서 설립한 영상법문과 대웅전이 만들어지기까지 과정을 담은 영상이 상영됐다. 대행 선사는 영상법문에서 "끊임없이 발걸음 하는 게 결국은 사람이 살아가는 불사이입니다. 여러 분들이 이것을 지어 놓았다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신다면 그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궁극에 들어가서는 세세생생에 내 집이고 더불어 같이 내 집인데 생색을 내서 했다 안 했다 하겠느냐, 잘했다 잘못했다 하겠느냐... 미래에도 여러분들이 이 장소에서 끊임없이

옷칠은 얹게, 단청은 은은하게  
우주탑·관상수·야생화 소재 벽화  
일반대중 위해 따뜻·편안하게 조성

이어가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고 설명했다. 광명선원은 1974년 창건된 광명사를 뜻하는 불자가 보시하면서 1982년 한마음선원 공양지원으로 대한불교조계종에 등록, 한마음선원의 첫 국내지원으로 중수됐다.

광명선원은 1992년 요사채, 강당, 공양간이 있는 본관건물을 신축했으며 1998년 대한불교조계종 광명선원으로 사찰명을 변경했고, 2005년 산신각 증축 불사에 이어, 2008년 구정탑 이운법회를 봉행하고, 2011년 11월에는 한마음 문화원을 신축 준공했다.

광명선원 대웅전 중창불사는 2006년 가을에 시작, 7년에 걸쳐 완성됐다. 중요무형문화재 제74호 최기



대웅전 내부 천정에 있는 대행 스님의 진영(眞影).



후불목탱화로 한국의 16국사와 16선사가 모셔졌다.



광명선원 주지 청백 스님이 발원문을 낭독하고 있다.

영 대목장이 건축 부분을 담당했고 설계는 (주)무진종합건축사 사무소의 정명학 건축사가 맡았다. 주불인 석가모니불은 목아 박찬수 조각장이, 후불 목탱화 조각은 문화재 기능보유자인 청원 스님이 맡았다.

기와는 중요무형문화재 이근복 변화장이, 옷칠은 중요무형문화재 정수화 칠장이, 단청 및 탱화채색과 개금은 전장일 화백이 참여했다. 대웅전 현판과 주련 휘호는 국보1호 송례문의 상량문을 쓴 서예가 소현 정도준 선생이 맡았다.

70평 규모의 광명선원 대웅전은 전면 5칸 측면 4칸 외9로 내11포 다포집 7량 팔작지붕 목조건축물로 지붕위에는 법계의 통신처로서 일체 물이 아닌 도리를 뜻하는 우주탑이 세워졌다. 대웅전 기둥과 대들보는 홍송, 각재 및 포부재는 육송을 사용했다.

광명선원 대웅전 단청은 원목의 느낌을 살리면서 은은한 색채를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주불인 석가모니불은 무형문화재 정수화 칠장이 삼베를 입힌 불상에 9년 이상 옷칠을 했고, 개금과 개안은 전장일 화백팀에서 마무리 했다.

청백 스님은 "법당의 한식 문살과 내부의 기둥, 교창, 대량 등은 얹게 칠하는 방식의 옷칠로 원목의 느낌을 살리고 비활자와 짙은색 등 일반인들에게도 호감을 줄 수 있도록 단청 또한 은은한 색채를 사용해 최대한 자연미를 살려 편안하고 따뜻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새로이 조성된 광명선원의 대웅전은 건축물 자체로서의 아름다움도 뛰어 나지만 목탱화의 조성이나 단청 작업에서도 전통과 현대의 감각을 조화롭게 이끌어내고 있다.

그 외에도 법당 주변으로는 흔하지 않은 형태이되 주변 경관과의 어울림 또한 뛰어난 소맷돌과 칠성교가 있으며, 후원(後園)의 소대 등을 통해서도 불교

문화에 있어서의 새로운 시도를 다양하게 보여준다.

특히 후불탱화에는 석가모니부처님 좌우로 우리나라의 16국사와 16선사가 모셔져 눈길을 끈다. 법당에 우리나라 역대 선지식들을 모셔 시대와 장소를 넘어서 일체 근본이 하나인 이치를 일러주고자 했던 대행 선사의 뜻이 깃들여 있다.

16국사와 함께 <직지심체요절>을 지은 백운 경한 선사 한분이 더 모셔져 있는 것은 또 다른 특징이며, 16선사가 있는 곳에는 초대종정을 지내신 한암 대선사와 대강백 탄허 대목사가 모셔져 있다.

내부 포벽에는 도의 국사와 서산 대사, 한암 대선사, 대행 선사 사위를 진영(眞影)으로 조성했으며, 천정 한가운데는 동근 원안에 공생(共生), 공심(公心), 공용(共用), 공체(共體), 공식(共食)이 한글로 새겨져 있다.

### 문화원도 개관...생활 수행 공간 활용

또한 법당 내부 빗방자에는 대행 선사의 법어가 쓰여져 있고, 대들보에는 비천상(飛天像)과 한마음선원 본원 및 광명선원의 법당 및 우주탑을 소재로 한 그림이 있다. 외부의 도리와 장여·부연에는 마음의 꽃을 피우는 발원으로, 도량에서 자생하는 꽃 피고 열매 맺는 관상수와 야생화로 벽화가 그려졌다. 뿐만 아니라 대웅전 전면에 6연의 주련은 선사 계승을 한글 판본체로 새겨 독특함을 더한다.

청백 스님은 "불사를 시작할 때 스님께서 '두루 살펴 꽃이 피고 뿌리내려 열매 맺네'라는 법어를 내려주셨다. 스님께서도 평소 마음 공부든 불사든 과거의 것을 답습하기보다 창조적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다 보니 전통을 이어가면서도 지금 시대에 맞는, 현대적인 불사를 하려고 노력했다"며 "단순히 건물을 짓는대거나 문화재를 만들겠다는 등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정성을 다해 부처님의 뜻을 담아가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광명선원은 이번 불사와 함께 최근 개관한 문화원을 활용하여 "향후 수련회와 템플스테이를 통해 생활 속에서 한마음 도리를 실천할 수 있는 수행공간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북 음성=이은기·사진제공=한마음선원

# 딱! 3년만에 방송계를 휩쓴 혁명마이크의 특징!

그 어떤 종류의 저가 앰프로도 쫓는 순간! 5~6천만원대의 소리를 일정하게 만들어준다.

### 읽고 나누는 정보분석력!

- ① 마이크 하나로 소리가 그렇게까지? .... : 현장 비교시 추호라도 다르면 누구 망신이고 누구의 경비가 손해인가! .... 의 판단까지는 못미치는 분
- ② 이번 새로운 음향시설에 만족한다. .... : 이런 곳일수록 시설업자의 전문성 부족으로 설교식의 강한 쇠소리속에 절대적으로 부드럽고 은은해야 될 염불정서가 파열음이 되는 곳으로 본 마이크 하나만 바뀌도 소리는 천지 차이로 바뀌는 곳임.
- ③ 밀쳐야 본전! 구경이나 해보자! ..... : 계산이 빠르고 염불 소원성취를 반드시 이룬다.

### 염불 소원성취란?

스님은 평생 염불만 하다가 염불 소리 들으며 열반에 이르는 염불 운명으로 염불 테크닉이 잘 들어가면 평생 목소리에 무리도 없지만 장엄하고 은은하게 들리는 내 염불소리에 신이냐면 스트레스가 확! 풀리고 듣는 불자 역시 감동되어 알짜배기 신도가 늘어나는 것이 곧 염불 소원성취!

### 순간에 바뀌는 염불 운명!

저희는 1년 열두달을 구경이나 해보자! ... 하는 스님들의 사찰을 항상 누비고 다님으로 1년 평균 2~30회 정도는 귀 사찰의 부근을 지날수도 있습니다. 소리 구경 차원에서 지나는 길이면 한번 들려요! .... 의 순간이 마이크 하나 값으로 5~6천이 넘는 거금을 벌었고 염불 운명이 바뀌는 순간! 입니다.

방문시 본 제품이 보급된 3천여 사찰들의 명단과 본 품이 매장에 없는 이유 및

- ① 이동식 방생용시스템
- ② 이동식 산사음악회 및 노래방 겸용시스템
- ③ 염불전문 음향시설시스템, 일체를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 구경 값 ₩ 커피 한잔! (카드 환영)

대표 권 의  
HITEC TOP

KBS 및 각 방송사 방송기자 네트워크  
미이크 공장직영, Multi-Cube  
음향시설 전문

EPSON  
PROJECTOR  
MASS  
MICROPHONES

경남 김해시 진례면 초전리 815-18  
TEL : (055) 343-1191  
H-P : 011-9471-2026  
010-7740-2026